

상암동 위에 큰 새 날고

신준우(편제)

조금만 더 흐르면 큰 강 나온다네
한강 임진강 합수(合水)하여 서해로 흐르는
어버이의 강 민족의 강 조강(祖江)

그 강 위에 큰 새 높이 나네
새해 갑오년 만사형통 기원하고
새 터 잡은 상암동MBC 바라보며
끼룩끼룩 기뻐하고 하늘님 미소 보내네

서로 제 갈 길 가며 화약냄새 진동하는 한반도
요즘 자주 꿈을 꾸게 되네
북행 열차로 거침없이 대륙 달리는 꿈
말갈기 높이 세워 요동 만주벌 달리고
철새 되어 철새가 되어 분단 철조망 넘는 꿈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우(社友) 고별 나누는 풍경
흐르는 세월 석양은 쓸쓸하지만
작은 일에 과거 덮고 하나되는 MBC 되어
좋은 방송 평화통일 방송 소망한다네
새 터전 상암동 푸른 하늘 축복의 큰 새 높이 나네



신년사

‘MBC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회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우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하나마 그 바람이 얼마간 이루어졌다면 모든 게 회원님의 협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고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넉넉하고 인심 좋은 찾집, 아랫목이 따뜻하여 오래 머물고 싶은 ‘착한 사랑방’,

삼삼오오 모여 앉아 추억을 더듬고 훈훈한 정이 오가는 그런 사우회를 그려봅니다.

신년 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하면서 건강도 돌보는 동호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다수 회원들이 참여하는 놀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우회보를 증면(增面)해서 회원님에게 도움이 될 기사를 많이 실겠습니다. 수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재무상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송년회에서 본사 김종국 사장은 사우회가 MBC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외풍을 막아주고 강력한 지원세력이 되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사우회가 MBC의 울타리 역할은 물론,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MBC를 사랑하는 모임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금년에는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MBC사랑 캠페인’을 펼쳐 보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사우회 창립 24주년이 되는 해로 사우회 ‘중흥의 해’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走馬加鞭,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건강하시고 복된 일 많이 쌓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MBC 사우회장 김수량

신년사

상암동 신사옥에서 MBC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MBC사우회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은 MBC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상암동 신사옥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열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MBC 슬로건도 <무한도전 코리아, 열정MBC>로 정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6월 지방선거 방송을 최고 수준으로 치르고 뉴스, 시사교양,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가을 <대장금 시즌2>를 통해 전 세계에 한류 붐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습니다.

‘마담비연(馬踏飛燕)’ 하늘을 나는 제비의 날개를 밟고 뛰어가는 한혈마(汗血馬)처럼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MBC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MBC 임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땀 흘릴 것입니다. 사우회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김종국

2014 MBC 캠페인

무한도전 코리아!
열정MBC!

희망과 감동, 상암 시대를 엽니다



"2013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 600여명 참석

〈2013 사우회 송년의 밤〉행사가 지난 해 12월12일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려 원로 회원들이 나들이하기에 불편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숙 명예회장, 노서울-이수홍-우윤근-서규석-이만우-김민식 고문, 강성구 전 사장 등 579명이 참석했고, MBC에서 김종국 사장 등 15명, 정수장학회에서 김삼천 이사장 그리고 흥국화재보험에서 2명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부산에서 최문주(관리), 울산에서 류달훈(편제), 상주에서 최순근(편제), 봉화에서 정재호(관리), 대전에서 서동식(관리), 양양에서 김재수(관리) 회원 등이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 사우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김수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째 퇴직 사우들에게 쌀을 보내준 MBC에 감사”를 표하고,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으로 MBC 사랑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국 사장은 “MBC가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각오로 MBC를 1등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선배님들이 흘린 피와 땀을 잊지 않겠다” 면

서 사우회가 MBC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당부했다. 김완기(MBC 개그공채 14기) 이지성(MBC 개그공채 18기) 두 개그맨이 진행한 2

속 앵콜을 받아 다섯 곡이나 불러 박수를 받았으며, “김종국사장님, MBC에도 트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김사장에게 요청해 즉석에서 승낙을 받아내는 애교를 발휘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행운권 추첨에서는 임진섭(관리) 회원이 1등(50만원)에 뽑히는 영광을 차지했고, 유규현(기술) 회원이 2등(30만원), 김종윤(기술) 회원이 3등(20만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MBC 퇴직 후 처음으로 이번 송년의 밤에 참석한 한 회원은 “기라성 같은 대 선배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움이었으며 600명이나 참석하는 송년행사를 처음 본다”면서 새삼 MBC의 위력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MBC플레이비·키자니아 진현숙 사장, MBC C&I 전영배 사장, 대한민국헌정회 권해옥 사무총장, 흥국화재보험 윤순구 사장이 화환을,

부 여흥시간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박현빈씨와 김용임씨가 출연해 참석한 6백여 회원들을 즐겁게 했다. 트로트 메들리를 불러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용임씨는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여 사우회원들로부터 연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이 화분을 보내와 사우회 창립 23주년 송년의 밤 행사를 축하해주었으며 참석한 전원에게 MBC가 마련한 청정 해산물 세트와 다이어리, 사우회 회원수첩 1권씩을 선물로 드렸다.

알림

정기총회 개최

2014년 회원 정기총회가 2월27일(목) 오전 11:00시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02-399-1114)에서 열립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3 회계년도 결산 승인 및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사우회보 편집장 교체

사우회보 편집장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 10월15일에 발행된 창간호부터 지난 20호까지 4년간 수고한 한박무(보도) 편집장에 이어 김상옥(편제) 편집위원이 새 편집장으로 수고하게 됐습니다.

집 전화 /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집 전화와 핸드폰 번호가 사무처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이 많습니다. 사우회에 연락처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사무처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개인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무처와 연락을 하지 않고 계시는 회원, 또는 전화번호가 바뀐 회원들께서는 사우회 사무처(02-722-7416)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편집장 인사



2014년 1월(회보 21호)부터 사우회보 편집장을 맡으라는命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으나 새로운 책임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회보 편집을 위해 부문별 편집위원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우들의 생활권이 넓어서 최근 동정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우회보가 우리들의 장(場)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우들과 나누고 싶은 옛날 추억을 비롯해서 에세이, 시론, 여행기 등 다양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 주위 회원들의 근황이나 동정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십시오. 아래 나열된 부문별 편집위원들에게 전달하셔도 되고 사우회 사무처나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에 늘 귀를 열어 놓겠습니다.

편집장

김상옥(편제) 010-3672-6130

편집위원

김승한(보도) 010-5249-9306 / 임주완(아나) 010-8848-5211

김세하(기술) 010-5221-0618 / 이용구(업무) 010-5310-3850

신견옥(관리) 010-7389-0154

경.조사

팔순

이종구(관리)2/6 권오룡(업무)2/11 유정희(업무)2/14 김원기(기술)3/3
류달훈(편제)3/26 이종선(관리)3/30

고희

박수부(업무)2/5 이해결(업무)2/5 양승원(기술)2/20 이처경(기술)2/28
이상림(전주)3/1 박종규(기술)3/7 성장용(대전)3/22

회갑

이수관(관리)2/5 신기준(기술)2/6 조형철(관리)2/8 김영성(기술)2/26
안주희(ANN)3/14 김종윤(기술)3/17 고영석(관리)3/20 전진권(편제)3/27

결혼

서은선(ANN)장녀11/23 차효석(대전)장남11/24 이양휘(전주)장남11/30
이상로(보도)아들12/01 홍이표(관리)차녀12/01 차종식(기술)차남12/14
김수량(기술)장녀12/21 김영금(관리)차남12/22 윤홍섭(보도)아들02/08

회원/ 회비관리

평생회비

정현자(관리)11/28 윤주혁(관리)01/02 박영태(기술)01/06 박두식(관
리)01/06 강신천(관리)01/06 이춘호(관리)01/07 박우성(편제)1/8 김준원(기
술)1/8 류근중(관리)1/8 김준수(기술)1/9 전영도(기술)1/9 윤영관(편제)1/9

연회비

11월 : 강준오(11~13, 80세 납부끝) 강철호(14) 권상규(13~14) 김규홍(13)
김만기(12~14) 김명수(16~20) 김삼량(13) 김창식(13~15, 80세 납부
끝) 김호석(13) 노영일(13) 오순심(13) 이병석(14) 이수극(01~10, 80세
납부끝) 이재원(13) 이종선(13~14, 80세 납부끝) 이화옥(10~12) 장인
순(17~19) 정영수(10~14) 하민웅(13) 하영상(11~13) 洪宗善(00~13)
황재원(11~14, 80세 납부끝)

신규입회

姜信天(관리) : 010-3726-1671 031-342-6234
군포시 군포2동 동아A 101동 608호
權洙勳(관리) : 010-3401-0489 02-3431-0489
송파구 오금로32길 42, 102-2104 (송파동, 현대A)
金駿壽(기술) : 010-5267-6728 02-456-6728
영등포구 당산로4길 12, 101동 2304호
金準源(기술) : 010-9199-5785 070-4104-2459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 22, 3-1203 (한신무학A)
柳根鐘(관리) : 010-8955-3952 02-3463-2946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42, 4-507 (도곡동 한신A)
朴斗植(관리) : 010-5218-5714 031-388-2903
안양시 평촌대로 421-13 (비산동)

전화/주소 변경

고문 : 우윤근 010-6202-3333
편제 : 강현식 010-5278-8286 / 김경태 010-8915-2402
김관영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64번길 22, 102-103
(삼성래미안A)
김병덕 010-7997-8433 / 박찬순 010-2293-4084
김정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레이크폴리스1차
B- 714(장항동)
신상용(편제) 010-2188-7713
이석현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4-703
(신대방동, 동작상떼빌A)
보도 : 윤홍섭 010-5384-0073 / 정성만 010-3786-6083
홍윤호 010-5490-7855
ANN : 이연경 010-7695-0618
업무 : 이두표 010-3723-7216 / 이현보 010-4207-7416
차명륜 010-3741-1327
관리 : 권선장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70, 304-101
(정발산동,밤가시건영빌라)
김성규 010-3265-2194 / 노성석 010-6360-3346
문용수 010-3754-4305 / 위호인 010-5442-0166
안창균 파주시 산남로107번길 86-15
이영환 서초구 서초대로 64길 31, 101-104(서초한일A)
이재원 010-4694-8610 / 한귀현 010-9105-2210
장한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36번길 3, 301호 (행신동)
정병준 010-6323-4570 / 정재호 010-6234-3399
홍춘표 인천시 부평구 후정동로 12, 103-802 (벽산블루밍A)
부산 : 정판식 부산시 남구 신선로 566, 306-2104 (용호동,GS하이츠자이)
대구 : 이완수 010-3514-1789

부음

정길용(보도)부친상11/28 신종인(편제)장모상11/29
金晶洙(편제)모친상11/29 정철영(보도)모친상12/01
정호준(대구)부인상12/03 김경태(편제)장인상12/15
김일수(편제)모친상12/16 위호인(관리)부친상12/22
한윤희(관리)부친상12/29 편일평(보도)장모상12/30
한용규(기술)모친상1/9

이주열(대구) 지난해 11월12일 별세, 향년 81세. 1961년 2월에 개국요원으로
본사에 입사. 1963년 대구MBC 사업국장 등 역임.

유홍일(원주) 지난해 11월15일 별세, 향년 73세. 1971년 원주MBC에 입사해
보도국장, 상무이사 역임.

최종구(관리) 지난해 12월3일 별세, 향년 76세. 1969년에 본사에 입사해
1997년에 정년퇴직.

박상봉(편제) 지난해 12월7일 별세, 향년 61세. 1976년에 본사에 입사해 20
년간 미술부문 근무.

백광수(대구) 지난해 12월16일 별세, 향년 76세. 대구MBC 기술국장 역임.

12월 : 강의원(13) 강창우(13~14, 80세 납부끝) 권수훈(13) 권오룡(13~14)
권윤성(13~14) 권혁화(14) 김관영(13) 김순홍(13) 김시용(14) 김우중
(12~13) 김은혜(11~12) 김일수(07~13) 김재식(13) 김점용(14) 김종
복(12) 김종수(14) 金鍾顯(13) 김태경(11) 김태인(13~14) 김홍배(13)
김희을(13) 노성석(12~14) 류달훈(09) 박성배(13) 박한성(10) 방남순
(13) 손도정(14) 송인익(13) 안영식(13~14) 양승원(13) 오학식(13) 윤
풍기(14) 이강용(12~14) 이대교(14) 이명수(14) 이보근(15) 이상세
(14) 이상수(13) 이소진(13) 이승문(14) 이양길(14) 이운하(13) 이종구
(13) 인우삼(15) 임부영(13) 장두형(13) 장우식(13) 전용수(15) 정병준
(14) 정태일(13) 정호준(12~16, 80세 납부끝) 조은국(12) 최대홍(14)
최승일(14~15) 최영복(14) 최영삼(12~14) 최영호(13) 최창일(07~14)
하광언(13~14) 하영현(13) 홍순홍(13) 황학구(13)

朴英泰(기술) : 010-9105-2127 02-6218-0904
성동구 행당로 82, 114동 904호
朴雨成(편제) : 010-3915-2560 02-3482-2569
서초구 사임당로23길58, 301-303 (서초동 현대A)
尹泳觀(편제) : 010-8955-3706 02-718-2399
마포구 삼개로 33, 16동 403호
尹宙赫(관리) : 010-3740-1674 032-503-1949
인천시 부평구 부일로19번길 37 (부평동)
李春浩(관리) : 010-8955-3817 02-6467-5078
성동구 독서당로 175, 102-1204 (옥수동,극동그린A)
全永道(기술) 010-8778-3440 02-4730-3446
강남구 언주로 203, 104호 (매봉삼성A)
鄭賢子(관리) : 010-6311-4990 031-964-4960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398-17, 103-802 (고양동,운창A)

회 원 동 정



우윤근(사우회 고문)

광고홍보인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광고홍보분야 원로,
중진들의 모임인 서울
AP클럽으로 부터 지
난 해 12월 23일 감사패를 받았다.



박찬순(편제)

두 번째 소설집 <
무당벌레는 꼭대기
에서 난다>를 지난
해 출간했다. 2010
년 첫 번째 소설집
<발해풍의 정원>을 펴낸 바 있다.



윤영관(편제)

선문대학교 산학연구
처 교수(정년트랙) 부
임. 강의 외에 산학협
력과 창업동아리 지
도를 담당.



김영철(편제)

성균관대학교 출신
언론인 모임 <성언
회>의 '2013 자랑스
러운 성균언론인'으
로 선정되었다.



김병덕(편제)

'MBC 야화(夜話) 내
청춘 비화(秘話)'를 지
난 해 출간했다. 60년
대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젊은 시절
얘기를 담았다.



이중광(관리)

시집 <라일락 꽃피
는 마을>과 <카네
이션>을 지난해 출
간, 사우회 송년회
에서 두 권의 시집을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이 사람

고무송(편제)



성탄절 무렵 “토마스 찾아 삼만리”라는 책 한권이 우송되었다. 고무송목사가 신학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한국 개신교 최초 순교자인 토마스선교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러 세계 여러 곳을 다녔던 과정을 담은 일종의 다큐멘터리인데, 그가 라디오PD 재직시 제작했던 ‘전설따라 삼천리’를 연상시키는 책 제목을 보면서 나는 방송을 떠나 있었던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대한 식지않은 그의 애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싸-해졌다.

1980년 7월 19일, 라디오 제작2부 차장으로 인기 드라마 ‘법창야화’와 ‘전설따라 삼천리’를 제작하던 그는 신군부의 ‘언론 대학살’의 희생자 712명 중 하나가 되어 이유도 모르는 채 강제 해직을 당한다. 라디오PD 2기생으로 입사한지 13년, 당시 나이 40세, 3남매를 둔 가장이었던 그가 받았을 충격과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 일.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 30대에 이미 장로가 된 그에게 ‘신앙’의 힘이 없었더라면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을 수 없었으리라. 해직을 당한 후, 한동안 방황하던 그는 하용조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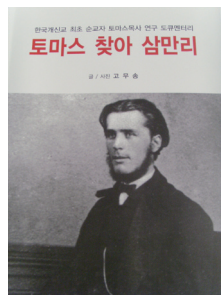
사(고인)의 간곡한 권유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고 TBC에서 영화더빙 연출 의뢰를 받아 잠시 생활고를 해결해보지만 그 또한 언론사통폐합이 되면서 자리를 잃고 만다. ‘두란노서원’의 창설 스태프이자 잡지 ‘빛과 소금’의 초대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3년의 신학 과정 외에 2년간의 설교학, 상담학 전공을 더하여 도합 5년간의 치열한 신학대학원 생활을 마친 그는 1986년 6월, 주위의 도움으로 큰 뜻을 품고 영국 유학의 길에 오른다.

방송생활을 하는 동안 잊고 지내던 영어공부를 다시 하면서 선교사훈련학교(WEC) 1년과 런던 신학교 2년을 마친 후 50세의 적지않은 나이에 버밍엄대학교 박사과정에 등록한다. 13년간 정신없이 드라마 제작에만 열중했듯이 이번에는 늦깎이 신학생으로 정신없이 신학공부에만 매달렸다. 눈물 많은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더라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무일푼의 고달픈 유학생생활은 꿈도 못 꾸었을 일이지만 아무튼 그는 1995년 12월, 박사과정에 등록한지 4년 만에 마침내 선교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감격을 맛본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선교사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머나먼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교회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토마스목사. 그의 행적을 찾아 머나먼 영국 국내를 살살이 뒤지고 미국, 중국은 물론, 순교지인 평양까지 집요하게 추적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 기독교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해직된지 몇 년 후,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방송에 대한 애정과 미련 때문에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단호하게 ‘No Return’을 외쳤는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택하라 한다면 서슴없이 PD를 선택하겠다는 그는 비록 낮은 얼굴들이 많아서 서먹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사우회 송년의 밤과 PD 협회 송년모임 만은 빼놓지 않고 참석할 만큼 방송에 대한 고목사의 사랑은 애틋하다. 몇 년 전 한국기독교 공보 사장을 거쳐 현재 120년 한국교회사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한국교회인물연구소’를 맡아 전국을 누비고 있는 고목사. ‘전설’을 취재하기 위해 삼천리를 다녔던 고PD의 생활과 맥이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글/ 편집장



MBC에 ‘교육국’이 있었는데..

김재수 (관리)



1969년 8월8일, 문화방송은 인사동 시대를 마감하고 정동 신사옥으로 옮겨 텔레비전 시대를 개막했다. 그 즈음 직원들 간의 화제는 <문화방송TV는 교육방송으로 허가를 받았나>였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나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MBC-TV에 ‘교육국’이 생기면서 스카우트 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발령날짜는 1969년 8월1일, 날짜도 그렇거니와 당시 교육국장이셨던 엄한준씨(타계)의 느릿한 첫 마디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다. 말씀인즉 “가만히만 계시우”였는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엄국장은 당시 문교부 학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스카우트 돼서 오셨는데 충청도가 고향이라 말씀은 느리셨지만 아주 엄격한 분이셨다. 교육국의 면면을 생각나는 대로 더듬어 보면 박종민(타계)씨가 부국장으로 계셨고, 엄후진-오인영-이임생-최창일-김재식-박병두(타계) 그리고 필자까지 9명이었는데 박병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교사 출신들로 방송과는 전혀 관련없는 분야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었다. 박병두가 그나마 방송물을 먹기는 했

지만 그도 라디오 출신이어서 TV와는 거리가 있었다.

초창기 교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은 드라마 <사랑의 종> 다큐멘터리 <금메달 리스트를 찾아서> 생방송 <명교수 명강의>가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PD가 한사람도 없었으니 여간 딱한 노릇이 아니었다. 궁여지책으로 제작은 교육국에서 하고 연출은 TV제작국 PD들이 도와주었다. 연출을 도와주었던 이들로 허규(타계)-표재순-이효영(미국이민)-박철(미국이민)-유길춘씨 등이 기억난다.

교육국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생방송<명교수 명강의>였는데, MBC가 교육방송으로 개국했음을 대외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당시 조중출사장님도 교육국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사무실에 들러 “이번 주에 출연하는 명교수는 누구십니까?” 하고 관심을 표명하셨다. 명교수 가운데 특히 생각나는 사람은 무애(無涯) 양주동박사다. 그런데 자칭 국보(國寶)였던 양박사를 출연자로 모시려면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함은 기본이고, 모시러 갈때는 반드시 맥주 2병을 가지고 가야했다. 한 병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은 방송국에 도착해서 다 마신 다

음에야 방송에 들어가곤 했다. 이 규칙(?)은 출연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명교수 명강의>에 모셨던 명교수들은 문학박사 양주동을 비롯해서 철학박사 박종홍, 문학평론가 백철, 역사학자 이병도와 이선근, 고전문학자 이가원 등으로 당대 명교수는 거의 모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담당PD는 김재식 형이었는데 늘 동분서주했다. 어느 프로그램인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마는 초창기 경험과 시설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생방송<명교수 명강의>는 그러나 알수 없는 이유로 방송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추억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사장으로 오신 이환의사장께서도 “<명교수 명강의>같은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됐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 하셨다고 들었다.

그때 나이 스물아홉, 세상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고만장했던 필자의 나이가 올해 일흔일곱이 되었다. 48년 세월이 꿈결처럼 흘러간 것이다. 지금은 강원도 양양, 참외 서리하고 산골짜기에서 떡 감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서 ‘MBC 교육국’ 시절을 그리워하며 한가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뉴스와 통신위성

임 동 훈(보도)



MBC TV가 개국하던 해인 1969년 7월 20일, 우주선 아폴로11호의 달 착륙 장면이 통신위성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달 표면을 밟는다는 사실과 그 모습이 동시에 지구촌 곳곳에 방송된다는 경이로움에 몸을 떨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로부터 1년 후, MBC는 멕시코 월드컵 숲 경기를 처음으로 통신위성의 중계를 통해 안방에 전달했지만 그 뿐, 뉴스에서의 통신위성 활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70년대의 한국의 국제화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고 당시 '김대중 사건' '박동선사건' 등 국제적 관심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금기사항이 워낙 많아 제대로 다룰 수 없었고 한국 또는 한국인이 관련된 국제적 이벤트나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가 거의 없다보니 통신위성을 시험할 기회도 없었고 더욱이 긴축이 강조되던 70년대는 방송제작비도 절감해야 했던 시대인지라 값비싼 통신위성을 뉴스에 활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70년대의 끝자락에 생각지도 않은

사건의 발생이 '통신위성을 통한 뉴스제작'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른바 'KAL기 불시착 사건'이 그것이다.

1978년 4월 말, 유럽에서 서울로 향하던 KAL기가 하필이면 적성국 소련 그것도 지도에조차 잘 나오지 않는 무르만스크에 불시착했으니 사고 현장 화면을 TV뉴스로 제공한다는 일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비스 뉴스 등 해외 뉴스 계약사에 현장 특별취재 요청을 해놓고 불시착한 여객기와 같은 형의 여객기 사진, 항공사 스케치 등으로 근근이 화면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 파리특파원이 北歐로 이동하고 서울에서도 항공사 관계자와 함께 특별취재팀이 현지로 떠났으나 사고가 나고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현장화면은 확보하지 못했다.

위성 사용 경험이 많은 스포츠PD를 동원하여 위성 청약을 시도했지만 이미 일본 방송사에서 3시까지 청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본이 쓰지 않는 시간에 청약을 해놓고, 당시 제휴관계에 있던 후지TV에 일본 민방TV가 '재팬 풀' 형태로 받는 현장 화면의 일부를 서울에서 수신, 쓸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그러

나 사고 현장이 워낙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고 승객 송환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이 지나도록 현장 모습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승객의 얼굴이 처음 위성에 잡힌 것은 오후 2시 30분쯤. 그나마 나오다 끊기곤 하는 화면을 받아 릴레이식으로 TV주조로 공수하면서 '뉴스특보'를 처리하는데 3시쯤 마침내 MBC기자의 얼굴이 지구 저편에서 통신위성을 통해 화면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감격이라니!.. 소련 땅에서 구조된 승객들의 모습과 함께 우리 기자의 육성으로 한 시간 이상 속보 처리를 했던 "MBC 뉴스특보".

80년대 들어 텔레비전의 컬러화가 시작되고 유난히 잦았던 국가원수의 외국 순방을 부지런히 좇으면서 TV뉴스에서 통신위성의 활용이 본격화되지만 1978년 5월 초 일요일의 KAL기 불시착 뉴스특보야말로 통신위성을 대입한 최초의 뉴스였다. 통신위성이 지구촌 어디 가릴 것 없이 원하는 곳은 어디나 구석구석 비추는 요즘의 시각으로 본다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지만 당시 기자의 가슴을 뒤흔들던 그 감격은 35년이 지난 오늘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내가 졸지에 명사가 된 사연

이 규 용(관리)



2004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삼성문화재단이 8년을 공들인 끝에 한남동 남산자락에 세운 미술관 리움(Leeum)은 그 무렵 문화계의 큰 화두였다. 구경 한번 하기 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소문이 난 그 곳에 내 아우(인용. 당시 보도국 부국장)가 개관 리셉션에 초대받아 갔는지 하드커버에 두께가 목침만한 책 세권을 가져온 게 그 무렵이었다. "이건 형님한테 더 소용될 것 같아서요"라며 내게 준 그 책은 리움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건축가라는 마리오 보타(스위스), 장 누벨(프랑스), 렘 쿨하스(네덜란드)가 리움 3개관을 설계한 내용에 도면까지 실려 있었다. 고마운 선물이었다. 그렇지만 누가 겁을 준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가 리움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꿈도 못 꿀 일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왜 든 것일까.

리움은 그랬다. 당시의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내가 지레 주눅 들만큼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특별한 곳'이 바로 리움이었다. 리움은 개관행사에 초대받은 일본 오히라 미술관장 다카시나 슈지도 놀랐다는 디지털 전시가이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설치 운용하고 있었다. 관람객이 전시작품 앞에 서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해당 작품에 대한 정보를 화면과 이어폰에 동시 전달하는 정보처리 장치인데 정밀한 확대화면, 입체조명을 볼 수 있어 작품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다. (그런 취재 기사를 써서 일찌감치 내 야코를 죽였던 중앙일보 정재숙 기자는 리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연으로 지금 '절친'이 돼 있다).

리움을 향한 내 '먼 산 바라기'가 어느 날 뜻밖의 일로 일약 '리움 VIP'가 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행운이었다. 알 리가 없겠지만 나는 대학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했다. 그런데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학신문기사를 하면서 서양화, 동양화, 건축, 조각 등 타 학부 교수 선배들과 친해져서 그들의 개인전, 단체전 참관이 매 주말의 일상이 돼 버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때는 작품 구경도 구경이려니와 뒤풀이 말석에 끼어 앉는 것도 재미였다. 학생 신분인데도 명색 미술기사를 쓰는 기자이므로 그 때만큼은 나도 어엿한 화단의 일원이었다. 리움 VIP가 된 내력도 그 행적 덕분이겠는데 다름 아닌 그 당시 전시회장 순례 때 손에 쥔 팸플릿과 도록이 나를 '초청인사'로 만들어 준 것이다. 6년 전 봄이었다. 어찌어찌 된 계기로 내가 소장하고 있던 6천여 권의 책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가져가기로 하고 그 곳에서 실사를 나왔다. 그런데 창고 한 칸에 쳐박혀 있던 골판지 상자에 60년대 한국작가들의 전시회 자료들이 촌촌히 재어져 있었지만 전시회 목록, 팸플릿 '따위'는 책이 아니라서 연구원이 인수할 대상에서 제외돼 이것들 신세가 한마디로 '계류'이 돼 버렸다. 서리서리 얇힌 추억은 차치하고라도 내다 버리자니 모아 둔 세월이 허망하고 가지고 있는들 이 나이에 미술사료로 활용할 능력도 기력도 없는 데 이를 어쩐다? 문득 "언젠가 나도 리움 구경한 번 해야지. 요즘은 사람 가려가며 받지 않는다는데"하며 인터넷 리움 홈페이지에 들어간 기억이 떠올랐다. '리움 부설 한국 근현대 미술자

료센터가 있다지, 아마?' 전화를 했다 "뭐 필요 없는데요"라고 할까봐 솔직히 잔뜩 주눅이 들긴 했지만 이 계류를 처분할 꿈을 들키지 않으려고 짐짓 생색을 냈지 싶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직원의 반응이 뜻밖에도 놀라웠다. "저희가 지금 당장 가지러 갈까요?" 마치 다른 누가 가로챌까 봐 다급한 목소리였다. "아닙니다. 제가 갖다 드리죠. 실은 제가 리움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구경 한 번 시켜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랬다. 그날, 상자 세 개를 개봉해 차곡차곡 쌓인 팸플릿을 몇 십 년 만에 다시 뒤적거리며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가는구나. 평생을 사 보고 모은 책도 가고 이것들도 가고.....'

사람들은 이른 바 무소유(無所有)를 말할 때 법정스님이 같은 제목의 글에서 인용한 간디의 말을 떠올린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곤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 젖 한 깡통, 허름한 모포(毛布)여섯 장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評判)뿐이오"

그런데 나는 버리고도 큰 별이를 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한 6,612권의 책은 그 곳 장서각에 내 아호 '오래된 농담'이란 뜻의 고원문고(古譚文庫)가 되어 공개되고 있고, 리움이 인수한 희귀 미술자료 453점은 나를 리움의 VIP로 만들어 주었다. 태평로에 있는 플라토미술관(전 로댕갤러리)에서 열리는 대형 전시행사까지 포함해 최소 연 6~8회의 개막 리셉션에 나는 과분하게도 반드시 RSVP(Repondez sil vous plait)대상이 되어 전시 도록은 물론 기념품까지 한 짐 짊어지고 오는 초청인사가 된 것이다.

